

## 농사를 지으며 인생을 배운다

### Learning Life from Farming

평생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지만, 매일 출퇴근길에 한번 씩 필자의 눈과 마음을 붙잡았던 주말농장. 금년엔 꼭 해 보리라 다짐했던 계획을 드디어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 원래 10평 단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가족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과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먹으려면 좀 넓어야 되겠다 싶어서 20평으로 계약했다. 게다가 아직 개간되지 않은 잡초가 무성한 울타리 한 쪽은 직접 개간을 해도 된다가에 10평 정도를 추가했더니 총 30평이 되었다.

‘로터리’라 불리는 농기계의 힘을 빌려 적당한 간격으로 골을 나누어 겨우내 눌러 있던 땅을 갈아 뒤집어 흙속에 신선한 공기를 소통시켜주는 것이 처음 해야 할 일이었는데, 그나마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짜로 얻은 10평은 순전히 삽으로만 땅을 뒤집고 잡초와 돌을 골라내야 했기에 쉽지 않은 일이었다. 너무 욕심내서 무리하지 말라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몇 시간동안 땀범벅이 되어 붉은 흙을 드러내 놓고 상추를 비롯한 이름도 모를 쌈 채소들과 들깨, 가지, 옥수수, 호박, 토마토, 오이, 고추 등 여러 종류의 씨앗과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놓고 나니 그제야 밭 갈아 보여 농사에 대한 감이 없는 필자로서는 그저 흐뭇하기만 했다.

모종으로 심은 앞채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입맛을 다실 정도로 잘 자라주었지만, 씨를 뿌린 들깨는 2주가 지났는데도 도무지 싹이 올라오지 않아서 애를 태웠는데, 알고 보니 너무 깊이 심어서 늦게 싹이 트는 것이었다. 아무튼 3주째가 되니 붉은 흙속에서 파릇파릇한 초록색의 새싹들이 가득히 올라왔다.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마치 어린아이의 손을 만지듯 조심스레 싹의 촉감을 느끼며 행복한 미소가 가득해졌지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라고 했던가? 싹의 모양을 구별할 수 있는 일주일쯤 후에 다시 보니 필자가 심었던 들깨는 통 보이질 않고 올라온 싹의 90%가 잡초였던 것이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심었던 씨는 땅강아지나 새들이 다 먹어버렸고, 심지도 않았던 잡초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쪼그려 앉아 그 많던 잡초를 하루 종일 뽑으면서 잡초의 생명력을 생각해 보았다.

‘잡초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켜내려는 생명력이 강하다. 왜 보호받지 못할까? 그것은 ‘자신의 방식대로’ 꽃과 씨를 맺지만 사람에게 유익한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열매 맺는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빼앗아 가기까지 한다. 열매는 없어도 봄철에 꽃을 예쁘게 피우는 풀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풀들을 야생화라 부르고 사랑하지만, 이 역시 꽃이 지고나면 한낱 잡초에 불과한 것이다.’

잡초를 뽑으면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심지도 않았는데, 흙속에서 ‘콩나물’처럼 생긴 싹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다.

“이야~이거 황재다.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콩도 얻을 수 있겠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서 다시 보니 그 역시 콩처럼 보이는 잡초였고, “직접 심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잡초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그렇게 진리처럼 느껴질 수가 없었다. 심지어 뿌린 씨앗조차도 밭고랑에 떨어지게 되면 그 또한 잡초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다. 고랑은 밭로 밟고 다니며 밭의 작물을 돌봐야 하는 것인데, 고랑에 떨어져 자란 채소를 밟지 않고 조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전체 밭을 위해서는 부질없는 짓이었기 때문이다.

인생은 '대박' 이 아니라 '누적' 이라고 한다.

농사를 처음 지으면서 필자는 그동안 어떠했나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가을에는 주렁주렁 매달려 빨갛게 익어가는 고추로 양념을 만들어 물김치를 해먹을 생각이다.

마흔이 넘도록 농사일을 해보지 않았던 풋내기 농부는 오늘도 밭에서 토마토와 오이를 따며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인생' 을 그렇게 흙에서 배우고 있다.

그렇게 봄의 태양은 여름을 향해 달려가며 허탄했던 밭에 놀라운 생명을 부여하고 있었고, 농약을 하지 않아 구멍 난 잎채소들은 식탁의 즐거움으로 밥의 대가를 지불해 주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벌레도 먹고 나도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잎채소들을 우연한 기회에 자세히 살펴보니 벌레 알들이 그대로 박혀 있는 게 아닌가? 게다가 어떤 놈들은 이미 번데기가 되어서 잎을 뚫고 나오기 직전인 것도 있었다. 흔히 케일과 같이 두꺼운 잎채소에 달팽이가 기어간 자리처럼 보이는 구불구불한 자국은, 두꺼운 잎사귀 앞표면과 뒤표면의 사이에 알을 낳아둔 것이 깨어나 그 속을 지나가며 갇아먹은 자국이었고, 마지막 멈춘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작은 번데기가 들어있는 것이다. 여기에 구멍이 나 있으면 벌레가 이미 빠져나온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직 번데기로 남아있는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알고 봤더니 채소가 자란 후에는 농약을 하지 않지만, 씨를 뿌리기 전에 미리 땅에 농약을 해서 땅속에 있던 벌레들을 다 없앤 후에 모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거의 10평 가까이 심겨진 잎채소들이 모두 이런 상태였다. 몰랐을 때는 먹었지만, 알고 나니 못 먹겠다.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를 해보지만 어찌겠는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 모든 채소를 다 뽑아 버리고 고구마로 다시 심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데 그게 꼭 필자를 두고 생겨난 말 같다.

처음 농사를 짓다보니 다른 밭을 보는 것도 큰 공부다. 어찌면 그렇게 깨끗이 밭을 관리하는지 꼭 대리석 현관처럼 반짝반짝한 느낌이 나는 밭도 있다. 모든 게 다 '정성' 이다. 주인이 쏟은 정성만큼 자라고 열매도 맺게 된다. 그런데 '시기' 는 있는 것 같다. 고추는 종류별로 다 심었다. 아주 매운 청양고추, 덜 매운 고추, 파리 고추, 오이같이 크고 아삭한 오이고추, 그리고 피망까지. 다른 고추는 심은 지 한 달쯤 되니 벌써 많이 자랐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에 비해 유독 청양고추는 한 달이 다 되도록 처음 심은 크기 그대로였다. 거름도 주었는데 전혀 자라지 않아서 아예 뽑아버리고 다시 심을까도 생각했지만, 옆 밭의 아저씨가 자라는 때가 다 다르니 좀 기다리면 될 것이라고 그냥 놔두려 하셨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청양고추는 잘 자라주었고 여름 내내 맛있는 풋고추를 딸 수 있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지? 좀 일찍 성공하는 이도 있지만, 그 때가 더디 오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확신도 얻게 되었다.

농사를 짓기 전에는 비오는 것을 싫어했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밭에 나가 한 시간 이상 물을 주어야하는 수고를 하고 난 후에는 비오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농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철이 드는 건가? 비가 온 후에는 잡초 뽑기도 훨씬 수월해진다. 이번 여름에는 비가 간간히 자주 와서 봄보다 물주는 수고는 훨씬 줄었다.

인생은 '대박' 이 아니라 '누적' 이라고 한다.

농사를 처음 지으면서 필자는 그동안 어떠했나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가을에는 주렁주렁 매달려 빨갛게 익어가는 고추로 양념을 만들어 물김치를 해먹을 생각이다. 마흔이 넘도록 농사일을 해보지 않았던 풋내기 농부는 오늘도 밭에서 토마토와 오이를 따며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인생' 을 그렇게 흙에서 배우고 있다. ㉞